

李白 <古風>五十九首 譯解(8完)*

— 제52수에서 제59수까지

洪承直** · 趙成千***

<목 차>

1. 서론
2. 본론
 - 2.1. 제52수 푸른 봄은 세찬 여울물처럼 흘러가고
 - 2.2. 제53수 전국시기에 전란이 얼마나 많았던가
 - 2.3. 제54수 칼 차고 높은 대에 올라
 - 2.4. 제55수 제 땅 거문고 동쪽 노래를 튕기고
 - 2.5. 제56수 월나라 사람이 밝은 구슬을 캐내어
 - 2.6. 제57수 새들은 수많은 무리로 태어났어도
 - 2.7. 제58수 무산아래 강가 지나다가
 - 2.8. 제59수 양주는 갈림길에서 훌쩍훌쩍 흐느끼고
3. 결론

1. 서론

李白(701 則天武后 長安 元年 - 762 肅宗 寶應 元年)의 <古風>59수는 모두 오언고시로 되어 있고 모두 체목이 없다. 창작년대는 開元12년에서 乾元2년 기간이다. 시의 편찬에서 연대의 선후순서가 없고, 주제, 형식 등도 다양하

* 이 논문은 '高山麗水講讀會'의 발표와 토론을 거친 후,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최종 책임 교열한 것이다.

** 순천향대 교수(주저자)

*** 을지대 교수(교신저자 sczhao1960@gmail.com)

고 상이하다. 학계에서는 이에 <고풍> 59수의 편찬자, 작품 수량 및 주제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고풍> 59수의 '古風'에 대해서도 각양의 해석이 있는데, 송대 劉克莊은 “이백의 고풍은 陳子昂의 感遇詩와 필력이 막상막하다(‘太白古風與陳子昂感遇之作, 筆力相上下’)”라고 하였다. 胡震亨은 “이백의 고풍은 그 편수가 진자앙의 감우시보다 풍부하고 阮籍의 영회시보다는 빈약하다(太白古風, 其篇富于子昂之感遇, 儉于嗣宗之詠懷)”라고 하였다. 청대 宋犖은《漫堂說詩》에서 “이백의 ‘고풍’은 고시 19수가 남겨놓은 뜻을 얻었다”¹⁾고 하여 <고풍>이 고시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여겼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지만, 최근 郁賢皓는 <李白‘古風’五十九首蜀議>에서 이백의 ‘고풍 59수’는 체제와 내용 및 풍격 등의 여러 측면에서 한나라 이후 詠懷 古詩의 집대성이라 여겼다.²⁾ 이상의 관점 모두 이백의 <古風>은 영회의 작품들로 여겼으며 또한 진자앙의 감우시와 비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백의 고풍은 영회시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그 묘사 체제에 따라 諷諭詩, 詠史詩, 遊仙詩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백의 고풍에서는 다양한 표현방식을 통하여 당시 정치 및 사회현실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였다.

본고는 이백 시를 완역하기 위한 일련의 번역 작업으로, <‘古風’ 59수 가운데 제52수에서 제59수까지 총 8수를 번역한다. 이로써 <古風> 59수를 완역하는 의의를 갖는 동시에 이백 <古風>의 성격, 체제, 내용, 형식 등을 이해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작품의 원문은 宋蜀本을 저본으로 하고 번역·校記·詳釋·解說的 형식을 취하였다. <‘古風’ 59수는 본래 無題詩이지만, 본고에서는 논문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매 작품 첫 구를 그 제목으로 하였다.

1) “완적의 영회시, 진자앙의 감우시, 이백의 고풍, 위응물의 의고시는 모두 고시 19수가 남겨놓은 뜻을 얻었다.(阮嗣宗詠懷, 陳子昂感遇, 李太白古風, 韋蘇州擬古, 皆得十九首遺意)” 宋犖, 《清詩話》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417쪽.

2) 郁賢皓, <李白‘古風’五十九首蜀議>, 《中國文學研究》, 1989년 4기, 3-4쪽.

2. 본론

제52수 푸른 봄은 세찬 여울물처럼 흘러가고

青春流驚湍,³⁾ 푸른 봄은 세찬 여울물처럼 흘러가고
 朱明驟回薄.⁴⁾ 붉게 타던 여름도 어느덧 바뀌었네.
 不忍看秋蓬,⁵⁾ 가을날의 마른 쭉 차마 보지 못하니,
 飄揚竟何託. 나부껴 떠돌다 끝내 어디에 머무나?
 光風滅蘭蕙,⁵⁾ 향초엔 맑은 바람 불지 않고
 白露灑葵藿.⁶⁾ 해바라기엔 흰 이슬 내렸구나.
 美人不我期,⁷⁾ 님은 나를 생각지 않는데,
 草木日零落. 초목만 날로 시들어가네.

<校記>

제2구의 '明'이 '火'로 되어있는 판본도 있다.

제5구의 '灑葵藿'이 '委蕭藿'으로 되어있는 판본도 있다.

3) 湍(단) : 여울. 급류.

4) 朱明驟回薄 : 朱明은 여름. 《爾雅·釋天》, “봄은 청양이라 하고 여름은 주명이라 하며 가을은 백장이 되고 겨울은 현영이라 한다.(春爲青陽, 夏爲朱明, 秋爲白藏, 冬爲玄英)” 回薄은 순환하여 서로 돌아 변화무상하다는 뜻. 이 구는 ‘어느덧 여름이 지나가 가을이 되려한다.’의 뜻으로 볼 수도 있고, ‘봄이 지나가고 어느덧 여름이 되려한다.’의 뜻으로도 볼 수 있다.

5) 光風 : 비가 그치고 갠 하늘에 부는 온화한 바람. 《楚辭·招魂》, “맑은 바람 향초에 들고 수많은 난꽃의 향기 떠도네.(光風轉蕙, 沆崇蘭些)”

6) 白露 : 이슬. ‘白’은 가을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고, 이슬의 투명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 葵藿(규곽) : 해바라기.

7) 不我期 : 나를 기다리지 않다. 나를 바라지 않다. 謝朓 <和劉中書繪人琵琶峽望積布磯詩>, “세월은 지나가 나를 기다리지 않으니, 바위틈 속에서 숨어살려네.(歲暮不我期, 淹留絕巖畔)”

<詳釋>

푸르던 봄날은 어찌 그리 바쁘지 마치 여울목의 세찬 물줄기 마냥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붉은 태양이 내리 쪼던 여름도 오고가 싶더니 홀연 가을로 바뀌었다. 초가을에 굴러다니는 저 마른 쭉을 차마 보지 못함은 내 신세와 같기 때문이니, 저 쭉이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어 굴러다니다 끝내는 머물 곳이 있거나 한 것인가? 비 개어 환한 햇빛 머금은 바람이 사라져 난초와 향초는 점점 말라가고, 여름날 뜨거운 태양을 쫓으며 자태를 뽐내던 해바라기도 어느덧 흰 이슬 맞아 젖은 모습으로 서있다.

그리운 님은 아직 나를 만날 생각조차 않고 있는데, 한해는 빠르게 저물어 그저 눈앞의 풀과 나무만 하염없이 시들어가고 있다.

<解說>

蕭士贇은 이 시의 뜻이 《離騷》의 “세월은 멈추지 않고 빨리 흘러, 봄과 가을이 서로 바뀌네. 초목이 시들어 떨어지니 내 님이 늙어감을 두려워하네.(日月忽其不淹兮, 春與秋其代謝。惟草木之零落兮, 恐美人之遲暮)”에서 나왔다고 하였을 만큼, 이 시는 주제상 《離騷》의 정서와 맞닿아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는 표현에 있어서도 《楚辭》에 빈번한 ‘香草美人’의 상징수법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이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景物의 묘사로서 시간의 덧없는 흐름과 작자의 님을 향한 초조한 심정을烘托해내는 고난도의 예술적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를 보통 ‘借景抒情’ 혹은 ‘寓情於景’이라고 하는 바, 이백은 이 작법을 자연스럽게 구사함으로써 《楚辭》의 정서와 언어를 唐代的 오언시로 재창조하였다.

이 시의 제1, 2구는 계절의 빠른 변화를 말하였고, 제3구에서 제6구까지는 쓸쓸할 가을날의 경치를 읊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구에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였다.

제53수 전국시기에 전란이 얼마나 많았던가

戰國何紛紛! 전국시기에 전란이 얼마나 많았던가
 兵戈亂浮雲. 병장기가 구름처럼 어지러이 하늘을 덮었지
 趙倚兩虎鬪,⁸⁾ 조나라가 의지하는 염파와 인상여도 서로 다투었고
 晉爲六卿分.⁹⁾ 진나라는 여섯 대부가 나누어 가졌지
 姦臣欲竊位, 간신들은 자리를 찬탈하려고
 樹黨自相群. 당을 만들어 세력을 키웠지
 果然田成子,¹⁰⁾ 과연 제나라의 전성자는
 一旦弑齊君.¹¹⁾ 어느 날 제나라 군주를 시해하고 말았다

<詳釋>

전국시대는 나라와 나라 사이, 대신과 대신 사이의 투쟁으로 혼란스러웠다.

-
- 8) 兩虎(양호) : 두 호랑이. 염파(廉頗)와 인상여(藺相如)를 가리킨다. 전국시대 조나라에서 인상여가 상경이 되어 무장 염파보다 지위가 높아지자 염파가 불만을 품었다. 이에 인상여가 조희도 칭병하여 피하고, 길에서 멀리 염파의 수레가 보여도 몸을 피하였다. 주위에서 인상여에게 그 연유를 물으니 인상여가 대답했다. "강력한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두 사람이 있기 때문이오. 지금 두 호랑이가 싸우면 그 기세가 둘다 살아남지 못하오. 내가 이처럼 행하는 이유는 나라의 위급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의 대립을 뒤에 두기 때문이오." 《사기·염파인상여열전》 참조.
- 9) 六卿(육경) :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范·中行·智·趙·韓·魏 등 여섯 가문의 대부를 가리킨다. 이들 모두 대대로 진나라의 경(卿)이었기 때문에 합쳐서 육경이라 하였다. 나중에 范·中行·智 등 세 가문은 패하고, 趙·韓·魏 등 세 가문이 성한 결과 진나라를 삼분하였다. 《사기·태사공 자서》에 "육경이 권력을 전횡하자 진나라가 없어졌다." (六卿專權, 晉國以耗.)는 말이 있다.
- 10) 田成子(전성자) : 춘추시대 제나라의 고관 진성자(陳成子). 그의 선조는 진 여공(陳厲公)의 아들 진완(陳完)인데, 여공이 죽은 후 그 동생이 계위하자 주멸될까 두려워 제나라도 달아나 성씨를 전씨(田氏)로 바꾸었다. 때문에 전성자는 이름이 항(桓)이어서 진항(陳桓) 또는 전항(田桓)으로 기록되거나, 한 문제 유항(劉恒)과 피휘하기 위해 전상(田常)으로 기록되었다. 기원전 481년에 제 간공(齊簡公)을 살해하고 평공(平公)을 옹립하여 권력을 전횡하였으며, 그의 삼대 후 자손이 제의 왕위를 찬탈하였다. 《論語·憲問》에 다음 기록이 있다. "진성자가 간공을 시해하자, 공자가 목욕을 하고 조정에 들어가 애공에게 말하였다. '진항이 그 군주를 시해하였으니 토벌하십시오.'" (陳成子弑君, 孔子沐浴而朝, 告於哀公曰: "陳恒弑其君, 請討之.")
- 11) 一旦(일단) : 하루에. 어느 날.

전란이 끊이지 않아 병장기의 물결이 구름처럼 하늘을 덮었다. 조나라는 주위에 강국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무장 염파와 재상 인상여가 두 호랑이처럼 대립하여 다투었고, 진나라는 范·中行·智·趙·韓·魏 등 여섯 대부가 세력을 넓히더니 결국 조·한·위 삼국으로 분열되었다. 간신들은 왕위를 찬탈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당파를 만들고 스스로 무리를 끌어들여 세력을 키웠다. 과연 제나라의 재상 전성자는 세력을 점점 키우더니 어느 날 제 간공(齊簡公)을 시해하고 권력을 전횡하였다.

<解説>

군주의 권력이 대신에게 넘어가는 하극상의 풍조를 비판하였다. 전국시대의 조나라와 진나라의 일을 빌려왔지만, 결정적인 일은 말미에서 춘추시대 말기 제나라의 시해를 예시함으로써 강조하였다. 제3구는 “조나라는 염파와 인상여에 의지하여 싸웠고”라고 풀이할 수도 있으나 작품의 주제가 하극상이기 때문에 대신 사이의 대립과 다툼에 맞추어 번역하였다. 역대의 평가 가운데 청대 陳沆의 《詩比興箋》이 참고할 만하다. “이 시는 <遠別離>에 나오는 ‘신하가 권력을 얻으면 쥐가 호랑이가 된다오’(權歸臣兮鼠變虎)의 뜻이다. 안으로 강력한 재상에 의지하고, 밖으로 교만한 장수를 총애하니, 결국 양국충과 안록산 두 호랑이가 싸우게 되었고, 안사의 난을 불러왔다.” 이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므로 일부 학자들은 안사의 난이 일어나는 755년 전후에 지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원별리> 자체가 753년에 편찬된 《하악영령집》에 실려 있다는 점에서 그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본다면, 이 시 역시 천보 후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54수 칼 차고 높은 대에 올라

倚劍登高臺,¹²⁾ 칼 차고 높은 대에 올라

悠悠送春日. 하염없이 저 멀리 봄날 풍광을 바라본다
 蒼榛蔽層丘,¹³⁾ 무성한 잡목은 높낮은 언덕을 뒤덮고
 瓊草隱深谷.¹⁴⁾ 영지는 깊은 계곡에 숨어있네
 鳳皇鳴西海,¹⁵⁾ 봉황은 서해에서 우니
 欲集無珍木.¹⁶⁾ 깃들려 해도 진귀한 나무 없네
 鸞斯得匹居,¹⁷⁾ 까마귀는 암수 짝을 이뤄
 蒿下盈萬族.¹⁸⁾ 썩 덩불 아래 가득하구나
 晉風日已頹,¹⁹⁾ 진나라의 풍기가 날로 무너져 내리니
 窮途方慟哭.²⁰⁾ 완적은 막다른 산길에 이르러 통곡했노라

<校記>

- 12) 倚劍: 《文選》 권31 江淹(엄)의 <雜體詩三十首>의 제29수인 <鮑參軍照戎行>에 “군사들 뮐행 가는 수레를 빌려 칼을 차고 변방으로 임하였네(息徒稅征駕, 倚劍臨八荒)”라는 구절이 있는데 李周翰은 “倚는 佩(차다)”라고 주석했다.
- 13) 榛: 楊齊賢은 “木叢(나무 덩불)”이라고 주석했고 朱諫은 “작은 나무들이 叢生하는 모습으로 소인을 비유한다”고 했다.
- 14) 瓊草(경초): 먹으면 불로장생한다는 버섯. 진귀한 풀. 주간은 “군자”를 비유한다고 했다.
- 15) 鳳皇: “군자”를 비유한다고 했다. ○ 西海: 서방에 있는 바다. 《史記·封禪書》: 동해에는 비록어가 나타나고 서해에는 비익조가 나타났다(東海致比目之魚, 西海致比翼之鳥).
- 16) 珍木: 진귀한 나무. 주간은 “잘 다스려지는 조정”이라고 했다.
- 17) 鸞斯(여사): 새 이름. 까마귀의 일종으로 체형이 비교적 작고 배 아랫부분이 희다.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며 떼를 지어 운다. ‘鴉烏’, ‘鸛鷗(필거)’라고도 한다. 옛 시문에서는 주로 “이익을 담하는 소인”을 비유했다. 주간 또한 “소인을 비유한다”고 했다. ○ 匹居: 암수가 함께 짝을 이루어 살다.
- 18) 萬族: 주간은 “매우 많다”라고 주석했다.
- 19) 晉風: 주간은 “짚은 짚이다. 風은 민속의 풍으로, 政事가 이루어지는 시발점”이라 했다. 嚴羽本에서는 “여기서의 진나라는 司馬氏의 진나라이다. 阮籍의 傳이 《晉書》에 있기 때문에 태백이 잘못 사용한 것이며 魏風이라고 해야 옳다”라는 明代의 批를 인용하였다.
- 20) 窮途方慟哭: 《晉書·阮籍傳》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완적도 원래는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위나라와 진나라가 교차하는 시절이라 천하에 변고가 많아서 명사들 중에는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완적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상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마침내는 술 마시는 것을 일상의 일로 삼았다. ... 이 때 마음이 내키면 홀로 수레를 몰고나갔는데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가 수레바퀴가 더 나갈 수 없는 곳에 이르르면 번번이 통곡하면서 돌아왔다.(籍本有濟世志. 屬魏晉之際, 天下多故, 名士少有全者. 籍由是不與世事, 遂酣飲爲常 ... 時率意獨駕, 不由徑路, 車跡所窮, 輒慟哭而反.)” 이는 정국이가 혼란하고 사회풍조가 날로 나빠지자 작자의 마음 또한 진나라 시대의 완적과 같다는 뜻이다.

제5구~제10구까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翩翩衆鳥飛,	새들 훨훨 날아
翱翔在珍木.	진귀한 나무로 날아들고
羣花亦便娟,	꽃들 또한 이제 막 피어나니
榮耀非一族.	아름다운 것 한 종류가 아니로다
歸來愴途窮,	돌아와 끊어진 길 슬퍼하며
日暮還慟哭.	해 저물어도 여전히 통곡하는구나

제5구의 “鳳皇”은 “鳳鳥”라고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7구의 “匹”은 “所”, “居”는 “棲”라고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詳釋>

봄날 칼을 차고 높은 대에 올라 저 멀리 봄날 풍광을 바라본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라고는 마치 소인들이 조정을 뒤덮고 있듯이 작은 나무의 무성한 덩불 우거진 높고 낮은 구릉뿐이다. 반면 진귀한 영지는 마치 지조 끈은 군자가 다른 이들과 뒤섞이지 않는 것처럼 깊은 계곡 안에 조용히 숨어 있을 뿐이다.

봉황은 편벽한 서방의 바다에서 울 뿐, 등지를 틀만한 진기한 나무가 없듯이 賢才들 또한 중용되기 힘들다. 까마귀같이 보잘것없는 새는 암수 쌍쌍이 짝을 이뤄 살며 쑥 덩불 사이를 날아다니는데 이미 수만 마리가 되었다. 이백이 살던 시기 또한 진나라 때의 世風과 마찬가지로 이미 퇴폐해 질대로 퇴폐해져서 재난과 변고가 끊이지 않았으니, 진나라 때의 완적이 수레를 몰아 길 아닌 곳으로 가다가 수레바퀴가 더 나갈 수 없는 곳에 이르면 통곡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듯이 지금 내가 가는 길 또한 끊어져 있으니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解説>

徐禎卿은 이 시를 “哀詩”로 보았고, 朱諫은 “당시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등용하는 것을 보고는 전란이 조만간에 이를 것을 예감하고 지은 시”로 보았다. 林兆珂(가)는 《李詩鈔述注》에서 “이 시는 당시 인재 등용이 왜곡됨에 따

라 조만간 전란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 때문에 쯤나라를 들어 비유하였고 완적이 '哭窮途'한 것을 본받고자 하였다"고 했다. 蕭士贊은 "앞의 두 구절은 높은 곳에서 멀리 내다보려는 의미를 담았다. 3구와 4구는 소인이 고위직에 오르는 반면 군자는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비유하였다"고 했다. 5구~8구는 당시의 군자 또한 세상에 쓰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정에서는 소인보다도 못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으며 소인만이 조정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말구에서는 당시의 頹靡한 풍속이 완적 시대와 같아서, 완적처럼 끊어진 길 앞에서 통곡하고 싶다는 자신의 의지를 담았다. 즉 마지막 두 구는 진나라의 일을 가지고 이백 자신의 심사를 비유한 것으로, 군자는 물러나 의지할 곳도 없는 반면 소인은 승승장구하며 같은 무리들이 차고도 넘치는 당시의 풍조를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55수 제 땅 거문고 동쪽 노래를 튕기고

齊瑟彈東吟,²¹⁾ 제 땅 거문고 동쪽 노래를 튕기고
 秦弦弄西音.²²⁾ 진 땅 고쟁은 서쪽 곡조를 타는구나.
 慷慨動顏魄,²³⁾ 미묘한 악곡은 혼백을 움직여
 使人成荒淫. 사람을 방탕하게 하네.
 彼美佞邪子,
 저 아름다운 간사한 여인
 婉孌來相尋.²⁴⁾ 아리따운 모습으로 찾아들어
 一笑雙白璧, 웃음 한 번에 백옥 한 쌍을 얻고

21) 東吟: 《文選》 권24<贈丁翼>: "진 땅 거문고는 서쪽 기운을 드러내고, 제 땅 古瑟은 동쪽 노래를 날리네.(秦箏發西氣, 齊瑟揚東調)" 제 땅은 동쪽에 있으므로 '東謳'라고 했다.

22) 西音: 曹丕, <善哉行>: "제 땅 기녀는 동쪽 춤을 추고, 진 땅 고쟁은 서쪽 곡조를 연주하네.(齊倡發東舞, 秦箏奏西音)", 진 땅은 서쪽에 있으므로 진 땅의 고쟁을 '西音'이라고 했다.

23) 慷慨(강개): 음악과 노래가 미묘하여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 顏魄(안백): 안색.

24) 婉孌(완연): 아름다운 모양. 阮籍, <詠懷詩>: "아름다운 여인은 간사하여 이익에 따라 서로 속이네.(婉孌佞邪子, 隨利來相欺)"

再歌千黃金. 또 노래 불러 천금을 얻는구나.
 珍色不貴道,²⁵⁾ 미색만 좋아하고 도를 하찮게 여기니
 詎惜飛光沉?²⁶⁾ 빠른 세월 어찌 애석히 여기겠는가.
 安識紫霞客,²⁷⁾ 어찌 알리오, 신선이
 瑤臺鳴玉琴.²⁸⁾ 아름다운 누대에서 옥금을 타는 것을.

<校記>

제1구의 ‘彈’은 ‘揮’로 쓰여 있는 판본도 있다. 제3구 ‘顏魄’은 다른 판본에 ‘顏色’이라 되어 있다. 제12구 ‘玉琴’은 다른 판본에 ‘素琴’으로 되어 있다.

<詳釋>

동쪽 제 땅 거문고는 동쪽 노래를 튕기고, 서쪽 진 땅 古箏은 서쪽의 곡조를 타는구나. 격양되어 소리 높여 노래 부르니 미묘한 음악은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홀리게 하는구나. 저 아름다운 간사한 여인이 아리따운 모습으로 연이 어 찾아와 아침하니, 웃음 한 번에 백옥 한 쌍을 상으로 얻고, 또 노래 불러 천금을 상으로 얻는구나. 음악과 미색을 좋아하고 도를 하찮게 여기니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어찌 안타까이 여기겠는가. 신선이 가무와 미색에 흔들리지 않고 홀로 아름다운 누대에서 옥금을 타며 기쁨에 젖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解說>

蕭士贇은 이르길, 이 시는 세상 사람들이 유락에 빠져 미색을 귀하게 여기고 도를 하찮게 여기는 것을 풍자한 것으로 도를 얻은 선비가 일을 고상하게 한다

25) 珍色不貴道: ‘色’은 음악과 여색을 가리킨다.

26) 飛光: 광음, 세월.

27) 紫霞客(자하객): 신선.

28) 瑤臺: 신선이 사는 곳. ○ 玉琴: 이는 다른 판본에 ‘素琴’으로 쓰여 있는데, 이에 대해 王琦는 “素琴은 古琴 가운데 수수하게 금이나 옥, 진귀한 보석 등을 쓰지 않고 장식한 것이다”고 했다. 여기에서는 신선이 연주하는 음악으로 해석한다.

한들 어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徐禎卿은 이 시는 사람들이 음악과 女色을 좋아하고 仙術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풍자한 것이라고 했고, 朱諫은 이는 세상 사람들이 방탕한 음악과 美色을 좋아하여 스스로 천진함을 상실한 것을 말했다고 했다. 이 시는 바로 외면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서 외양적 아름다움을 귀하게 여기고 도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56수 월나라 사람이 밝은 구슬을 캐내어

越客採明珠²⁹⁾ 월나라 사람이 밝은 구슬을 캐내어
 提攜出南隅³⁰⁾ 손에 들고 남쪽 땅 끝에서 나왔네
 清輝照海月³¹⁾ 맑은 광채는 바다 위에 뜬 달을 비추고
 美价傾鴻都³²⁾ 높은 가격은 도성을 기울였네
 獻君君按劍³³⁾ 임금께 바치나 임금은 칼을 부여잡고 노여워하니
 懷寶空長吁 寶물을 품고 헛되이 길게 탄식하노라
 魚目復相哂³⁴⁾ 더욱이 물고기 눈알도 비웃으니

29) 越: '南越' 즉 현재의 廣東 일대를 가리킨다. 이 지역은 중국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인접한 바다에서는 야광주가 생산된다. ○ 明珠: 밝게 빛나는 야광주로, 여기서는 훌륭한 재능을 갖춘 인재로 비유되고 있다.

30) 南隅: '남쪽의 땅 끝 구석'의 의미로, 여기서는 越나라가 남쪽 끝에 있기 때문에 사용되었다.

31) 清輝: 맑게 광채가 빛나는 모양으로, 야광주가 밝게 빛나는 것을 가리킨다. ○ 海月: 바다 위에 뜬 달.

32) 鴻都: 황제가 머무는 都城, 즉 皇都를 가리킨다.

33) 按劍: 칼을 부여잡고 노여워하는 모양을 가리킨다. 鄒陽의 <獄中上書自明>에 "신은 듣기에 '명월주(明月珠)나 야광벽(夜光璧)을 한 밤중에 길을 가던 행인을 향해 던지면, 칼을 부여잡고 눈을 치켜떠 노려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귀중한 보물이) 자기들 앞에 버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臣聞明月之珠, 夜光之璧, 以暗投人於道, 衆莫不按劍相哂, 何則? 無因而至前也)"라는 전고가 있다.

34) 魚目: 구슬같이 생긴 물고기의 눈알. 張協의 <雜詩>其五에 "땅에 까는 벽돌인 영적이 노나라의 보옥인 여번에게 자랑하고, 물고기 눈알이 밝은 달을 비웃네(飭甌夸瑤璠, 魚目笑明月)"라는 전고가 있음.

寸心增煩紆³⁵⁾ 마음속 번뇌는 더해만 가네

<校記>

제4구의 '鴻'은 '皇'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詳釋>

월나라 사람이 월나라 남쪽 바다에서 생산되는 맑게 빛나는 구슬을 캐내어, 그것을 들고 월나라 남쪽 바닷가에서 나와 경성으로 들어갔다.

그 구슬의 맑게 빛나는 광채는 오히려 바다에 뜬 달도 비출 수 있었으니,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그 구슬을 온 도성을 기울고도 남았다.

월나라 사람이 그 구슬을 임금에게 바쳤으나 임금은 오히려 칼을 부여잡고 노여워하니 월나라 사람은 보물을 품안에 품고 헛되이 길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구슬처럼 생겨 구슬 속에 있어도 잘 구별하기 어려운 물고기 눈알이 야광주를 비웃는 경지에 이르니, 마음속에서는 고통스런 번뇌와 괴로움이 더욱 심해지는구나.

<解說>

이것은 시인의 회재불우(懷才不遇)의 傷念을 드러낸 일종의 '詠懷詩'로 볼 수 있다. 시 속에서 묘사한 '월나라 사람(越客)'은 다름 아닌 시인 자신을 빗댄 것으로, 밤에도 맑게 빛나는 구슬은 훌륭한 재주를 상징한다. 즉 훌륭한 재주를 품고 있으나 임금에게 도리어 내침을 당하고 동시에 구슬처럼 생겼으나 실제로는 '물고기 눈알(魚目)'밖에 안 되는 소인배들의 비웃음을 당하는 자신의 신세를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제1구부터 4구까지는 전반부로 주로 야광주의 아름다움을 읊조리고 있으며, 제5구부터 마지막까지는 후반부로 야광주의 진가를 알아주는 앓는 세상에 대한 탄식을

35) 煩紆: 번뇌로 괴롭고 어지러운 상태를 가리킴. 張衡의 <四愁詩>에 "길은 멀어 이르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나아가지 못하니, 어찌서 근심 품은 채 마음속은 번뇌로 괴로워하는가(路遠莫致倚踟躕, 何爲懷憂心煩紆)"의 전고가 있다.

노래하고 있다. 제6구의 “보물을 품고 헛되이 길게 탄식하노라(懷寶空長吁)”는 시 전체 주제어에 해당한다. 徐禎卿은 “이 시는 이백 스스로가 쫓김을 당한 것을 아파한 것이다(此篇白自傷被黜也)”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시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창작되었는가는 확실히 단정 할 수는 없으나, 다만 그 내용의 정황을 살펴 볼 때, 시인이 궁궐에서 쫓겨나 장안을 떠나게 된 天寶2年(743)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제57수 새들은 수많은 무리로 태어났어도

羽族稟萬化,³⁶⁾ 새들은 수많은 무리로 태어났어도,
 小大各有依.³⁷⁾ 크고 작은 새들 모두 기댈 곳 있네.
 啁啾亦何辜!³⁸⁾ 주주 새 또한 무슨 허물 있어,
 六翮掩不揮.³⁹⁾ 두 날개 거두고 비상하질 못하는가!
 願銜衆禽翼,⁴⁰⁾ 못 새들이 날개 물어 주어,
 一向黃河飛. 함께 황하로 날고 싶네.
 飛者莫我顧, 날고 있는 새들은 날 돌아보질 않으니,
 歎息將安歸? 탄식하노니, 장차 어디로 돌아갈거나?

<校記>

제1구의 ‘化’자를 ‘方’으로 주를 한 판본도 있다.

36) 羽族 : 조류. ○ 萬化 : 다종다양함, 여러 가지로 변화함.

37) 小大 : 작은 새와 큰 새.

38) 《韓非子·說林》 : “翩翩라는 새가 있는데 머리는 무겁고 꼬리는 굽어져 강하에서 물을 마시려 하면 꼭 넘어지니 다른 새들이 그 깃을 물어 주어 마셨다(鳥有翩翩者, 重首而屈尾, 將欲飲於河則必顛, 乃銜其羽而飲之.)”라는 말이 있다.

39) 六翮 : ‘翮’은 깃촉, 새의 양 날개 가운데 큰 깃털. 새의 양 날개를 말함. ○ 掩 : 거두다. ○ 揮 : 비상하다.

40) ‘銜衆禽翼’ : ‘銜翼’은 다른 새들이 周周 새 날개를 물어 물 마시는 것을 말함. 나중에는 서로 돕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확대됨.

제3구의 啁啁'는 여러 판본에 '周周'로 되어 있다.

<詳釋>

새들은 만물의 조화를 받아 수많은 종류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모두 의탁하고 돌아갈 곳 있다. 주주 새가 또 무슨 허물이 있어, 여섯 깃축을 거두고 비상하지 못하는가! 못 새들이 날개를 서로 물어 주어, 함께 황하로 날아가 물을 마시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날고 있는 못 새들은 나를 돌아보질 않으려 하기에, 나는 홀로 탄식하며, 장차 어디로 돌아갈까 걱정하게 된다.

<解說>

이 시는 시인이 周周라는 새를 자신에 비유하여, 유력자의 도움을 받아 곤경을 벗어나고자 하였지만, 그의 염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느끼는 고적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 시는 오언 고시이지만, 체재 및 평측에서 또한 오언율시에 근접하고 있다. 이 작품의 체재는 8구로 되어 있고 매구가 5자이며 총 40자로 되어 있다. 평측에서 이 시는 평성압운 측기식에 속하는데 전체 40자 가운데 35자(87.5%)가 이 평측규칙에 부합하고 5자(12.5%, 何·辜·銜·河·將)만이 벗어난다. 이 5자는 측성자가 사용되어야 할 곳에 평성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시는 오언 율시에 가깝다. 이 시는 聲과 情의 배합에서, 上平聲 五 微韻 '依'·'揮'·'飛'·'歸'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압운하였다('一韻到底'). 운미가 [i] 로 끝나는 경우, 대개 소리가 우렁차지 않기 때문에 비애나 감상의 내용을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시인은 저음의 선율을 사용하여 자신의 感傷의 정조를 표현하여 작품에 더욱 비애감이 감돌게 하였다. 단락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었다.

첫 단락은 제 1구("羽族稟萬化")에서 제4구("六翮掩不揮")까지이다.

제1, 2구는 '借物托寄'의 수법을 운용하여, 조류들이 각각 다르게 태어났지만 서로 의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하여 자신은 그러지 못한 현실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제3, 4구는 ‘托物比興’의 수법을 운용, ‘啁啾’로써 시인자신을, ‘六翮’으로써 구만리장천을 비상할 수 능력을 비유하였다. 제4구에서 阮籍 <詠懷詩> 41수의 시구 “天網彌四野, 六翮掩不舒”를 전고로 인용하고 있다. 시인은 자신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완적의 시구를 적절하게 인용하여 자신의 뜻을 더욱 극진하게 표현하였다. 다만, 완적은 ‘舒’를 사용하고, 시인은 ‘掩’자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 시인이 ‘舒’ 대신 揮자를 사용한 것은 압운을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舒’는 날개를 접었다가 펴는 가볍고 완만한 느낌을 주는 동작이고, ‘揮’는 날개를 쳐서 높은 하늘로 비상하는 동작(“終奮翼而高揮”·潘岳 <西征賦>)이다. ‘揮’는 ‘舒’에 비하여 비상에 대한 염원을 더욱 절실하고 강렬하게 표현한다. 그러나 두 시인 모두 날개를 거두고 날지 못한다고 함으로써 독자에게 당시 처한 시대환경을 연상시키고, 무한한 슬픔을 유발시키고 있다. 첫 단락을 감상으로 마무리하였다.

둘째 단락은 제5구(“願銜衆禽翼”)에서 제 8구(“歎息將安歸”)까지이다.

제5, 6구에서 시인은 ‘날고 있는 새(유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황하(조정)’로 가고자 하는 강한 염원을 드러내었다. 제5구의 ‘銜衆禽’은 阮籍 <詠懷詩> 14수 가운데 “周周尙銜羽, 蚩蚩亦念飢”에서 온 말이다. 두 시인 모두 이로써 당시 냉엄하고 차가운 현실에서 서로 의지하여 염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제6구 ‘黃河’는 주주 새가 날아가서 물을 마시고자 하는 곳이며, 또한 조정을 비유한다.

제7, 8구에서는 ‘나는 새(유력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하는 당혹감, 고적감을 표현하였다. 제7구의 ‘飛着’는 ‘나는 새’를 가리키지만, ‘힘 있는 자’를 비유한다. 제8구의 ‘將安歸’는 阮籍 <詠懷詩> 14수 가운데 말구(“黃鵠游四海, 中路將安歸”)에서 온 말이다.

시인은 둘째 단락 말미에 ‘將安歸’로써 ‘設問’을 구성하여 자신의 고적감을 긴 여운으로 남기며 또한 독자들에게 깊은 사색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阮籍 <詠懷詩> 14수⁴¹⁾와 그 배경·소재·용운·시어·

구성·안배·정조 등에 있어서 매우 흡사하다.

이 시를 읽으면 또한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1821~1867)의 시 '신천옹(信天翁)이 연상된다. '엘버트로스'라고도 불리는 이 새는 2m가 넘는 날개를 펼치며 우아하게 하늘을 비상하지만, 지상에 내려오면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처럼 뒤뚱거린다. 창공을 비상했던 2m가 넘는 날개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이 된다. 해안가 절벽 같은 곳에 둥지를 틀고 살면서 기류를 이용해 활강을 하듯 날아오르는 엘버트로스에게 있어, 평지에서 하늘로 비상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백은 '주주' 새를 통해, 보들레르는 '신천옹'을 통해 자신의 현실 처지를 비유하고 창공으로 비상하고 푼 염원을 간절하게 드러내었다.

제58수 무산아래 강가 지나다가

我行巫山渚,⁴²⁾ 무산아래 강가 지나다가

41) 灼灼西隕日，余光照我衣。回風吹四壁，寒鳥相因依。
周周尚銜羽，蛩蛩亦念飢。如何當路子，磬折忘所歸！
豈爲夸譽名，憔悴使心悲。寧與燕雀翔，不隨黃鵠飛。
黃鵠游四海，中路將安歸？

42) 行(행) : '到'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 巫山(무산) : 지금의 四川省과 湖北省 경계에 위치하며, 그 형세가 巫字와 같기 때문에 무산이라 일컫는다. 장엄한 산 언덕이 첩첩으로 하늘을 가리고 큰 강이 그 속을 꿰뚫어 巫峽을 이루며, 무산십이봉이라는 12개의 봉우리가 있고 그 밑에 무산 신녀를 모시는 神女廟가 있다. (宋玉, <高唐賦> - 옛날 초나라 양왕이 송옥과 운몽대에 노닐며, 고당의 풍경을 바라보니 그 위에만 구름이 있어 바로 치솟기도 하고 홀연히 모습을 고치며 순식간에도 끝없이 모습이 바뀌고 있었다. 왕이 송옥에게 물었다. "저것이 무슨 기운인가?" 송옥이 아뢰었다. "朝雲(아침구름)이라 하는 것이옵니다." 왕이 물었다. "무엇을 朝雲(아침구름)이라 하느냐?" 송옥이 아뢰었다. "옛날, 선왕(懷王)께서 高唐에서 노닐실 때, 피곤하여 낮잠을 주무시는데 꿈에 어떤 부인이 나타나서 '이 몸은 무산의 여인으로 이 고당에 들렀다가 임금께서 고당에 노닌다고 하여 찾아뵙니다. 원컨데 잠자리를 돌보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께서 은혜를 내렸다고 합니다. 무산의 신녀가 자리에서 떠나면서 '소첩은 무산의 남쪽, 高丘의 북쪽에 있어, 아침에는 아침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내리는 비 되어 아침마다 저녁마다 陽臺에 있사옵니다'라고 했는데, 아침에 보니 과연 그녀의 말과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당을 세우고 朝雲廟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昔者楚襄王與宋玉游於雲夢之臺，望高唐之觀。其上獨有雲氣，

尋古登陽臺. 43) 옛 자취 찾아 陽臺에 올랐네.
 天空綵雲滅, 44) 텅빈 하늘엔 비단구름(꽃구름) 사라지고
 地遠淸風來. 45) 너른 땅엔 서늘한 바람 불어오네.
 神女去已久, 신녀 떠난 지 이미 오래고,
 襄王安在哉. 襄王은 어디에 있는가?
 荒淫竟淪沒, 46) 황음으로 끝내 몰락하였건만
 樵牧徒悲哀. 47) 나무꾼과 목동은 부질없이 슬퍼하누나.

<詳釋>

장강 삼협의 무산기슭을 지나가다가, 고적을 답사하려 초나라 襄王과 巫山 神女の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陽臺를 찾아갔다. 하늘엔 이미 오색구름 사라져버렸고 땅에는 차가운 청풍만 저 멀리서부터 불어온다. 무산의 신녀가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초나라 양왕도 이곳에 없다. 그들이 함께 만나 운운 지정을 나눴다는 방탕함은 이미 세월 속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황음

峯兮直上, 忽兮改容. 須臾之間, 變化無窮. 王問玉曰: “此何氣也?” 玉對曰: “所謂朝雲者也.” 王曰: “何謂朝雲?” 玉曰: “昔者先王嘗游高唐, 怠而晝寢, 夢見一婦人曰: ‘妾巫山之女也. 爲高唐之客, 聞君游高唐, 願薦枕席.’ 王因幸之. 去而辭曰: ‘妾在巫山之陽, 高丘之岨. 旦爲朝雲, 暮爲行雨. 朝朝暮暮, 陽臺之下.’ 旦朝視之如言, 故爲立廟號曰朝雲.” ○渚(저): 강가. 장강과 맞닿아 있는 무산 기슭.

43) 陽臺(양대): 陽雲臺. 전설속의 누대 이름. 지금의 사천성 무산현 양대산 위에 위치했다고 한다. (《太平實字記》- 높이가 120丈으로 남쪽으로 長江을 접하고 있다. 초나라 송옥의 부에서 말한 ‘운몽대에 노닐며, 고당의 풍경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한다. 陽雲臺, 高一百二十丈, 南枕長江. 楚宋玉賦云: ‘游於雲夢之臺, 望高唐之觀’, 即此.)

44) 綵(채): 胡本에는 ‘彩’로 되어있다. 비단. 채색.

45) 淸風(청풍): 차가운 바람. 서늘한 바람.

○朱諫은 이 두 구절을 세상이 바뀌어 오색구름이 이미 흩어지고 淸風만 소슬하니 불어와 처량한 풍경만 슬픔을 자아내며, 신녀는 다시 볼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해설하였다.

46) 荒淫(황음): 여색에 빠져 방탕하게 지내는 것. 阮籍, <詠懷> 제11수(“초나라에는 빼어난 선비들이 많았기에, 왕이 여색을 밝혀 방탕하도록 부추겼다네. 三楚多秀士, 朝雲進荒淫”)에 용례가 있다. ○淪沒(운몰): 파묻히다. 사라지다. ‘淪替’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47) 樵牧(초목): 나무꾼과 목동. ○《唐詩解》: “지금은 구름도 어디론가 가버리고 차가운 바람만이 불어와, 신녀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양왕 또한 행방을 알 수 없다. 나는(이백) 荒淫이 나라를 기울게 하기에 족함을 아는데, 양왕과 무산의 신녀이야기는 부질없이 나무꾼과 목동들을 슬프게 할 뿐이다.(今雲無處所, 淸風徐來, 不惟神女絕響, 襄王亦杳然矣. 我乃知荒淫足以覆國, 徒使樵牧悲哀耳.)”

은 몰락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남겼는데, 나무꾼과 목동들은 어이하어 이를 슬퍼하고 애통해하는지!

<解説>

蕭士贇은 이백이 무산을 지나면서 초나라 양왕의 이야기를 회고하며 지은 시라고 하였으며, 朱諫 또한 회고시라고 하였다. 安旗는 《李白全集編年注釋》에서 이 시의 창작시기를 乾元 2년(759)으로 보았다. 《唐詩解》에서는 “이백이 사면을 받은 후에 여기저기를 유랑하다가, 양대에 오르게 되었는데 양왕의 이야기에 느낀 바가 있었다. 그 때는 당현종이 양귀비를 총애하면서 황음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탄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李白集校注》에서는 이 시가 阮籍의 <詠懷> 其十一 “초나라에는 빼어난 선비들 많았기에, 왕이 여색을 밝혀 방탕하도록 부추켰다네 三楚多秀士, 朝雲進荒淫”를 근본으로 삼았다고 하며, 이백의 시가 <詠懷>와 많은 부분이 비슷하지만, ‘荒淫’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황음무도함을 풍자했다고는 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이 시의 창작시기가 건원 2년이라고 한다면, 이백은 분명 사면된 후 유랑하면서 안사의 난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참상을 목도하였을 것이다. 그가 양대에 가서 음탕하고 사치스럽기 이를 데 없었던 양왕이 총신과 애첩을 거느리고 운몽 땅에서 말을 달리며 놀았던 것을 회고하며, 흥망성쇠의 원인을 알려주는 역사의 교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우매한 이들에 대해 탄식하며 이 시를 지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제59수 양주는 갈림길에서 훌쩍훌쩍 흐느끼고

惻惻泣路歧,⁴⁸⁾ 양주는 갈림길에서 훌쩍훌쩍 흐느끼고,

48) 惻惻 : 비통한 모양. 차가운 모양. 간절할 모양. ○ 泣路歧 : 《淮南子·說林訓》에서 “양자(揚子)는 갈림길을 보고 통곡했다.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북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哀哀悲素絲. 49) 묵자는 하얀 실 보고 꺼이꺼이 슬피 울었다네.
 路歧有南北, 길이 남북으로 갈라지기 때문이고,
 素絲無變移. 50) 하얀 실이 물들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지.
 萬事固如此, 세상만사 본래 이와 같아,
 人生無定期. 기약없는 인생이여.
 田竇相傾奪, 51) 전분·두영 서로 빈객을 다투어,
 賓客互盈虧. 여기로 몰렸다 저기로 몰렸다 했던 빈객.
 谷風刺輕薄, 52) 경박함을 풍자했던 『시경·곡풍』,
 交道方險巖. 53) 기울어져 위태로운 우정.
 斗酒強然諾, 말술 들이킬 땐 호기롭게 승낙하고,
 寸心終自疑. 끝내 의심하는 한 치 마음.
 張陳竟火滅, 54) 장이·진여 결국 불 꺼지듯 사라지고,
 蕭朱亦星離. 55) 소육·주부 또한 별이 서로 떨어지듯 헤어졌네.

- 49) 悲素絲：《회남자·설림훈》에서 “묵자는 실 찾는 것을 보고 흐느꼈다. 누런 물이 들 수도 있고, 검은 물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했다.
- 50) 無：‘有’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음. ○ 이후 “萬事固如此, 人生無定期. 田竇相傾奪, 賓客互盈虧. 世途多翻覆, 交道方險巖.” 여섯 구가 없는 판본도 있음.
- 51) 田竇：전분(田蚡)과 두영(竇嬰). 한나라 무제 때, 전분은 귀척으로 무안후(武安侯)에 책봉되고, 두영은 칠국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위기후(魏其侯)에 책봉되었다. 위기후 두영(竇嬰)이 빈객을 좋아하여 모든 유사(游士)와 빈객이 다투어 위기후에게 귀순했다. 무안후 전분(田蚡)이 새로 정권을 잡아서 재상이 되었다. 무안후가 왕태후의 총애를 받아서, 말하는 것마다 받아들여지자, 잇속을 따르는 친하 사람들이 모두 위기후를 떠나 무안후에게 귀순했다. 《사기(史記)·위기무안후열전(魏其武安侯列傳)》 참조.
- 52) 谷風：《詩經·邶風·谷風》：“짜아짜아 산골 바람, 흐렸다가 비왔다가. 당신 마음 따랐건만, 화를 내면 안되지요. 무를 캐세 순무 캐세, 뿌리 없음 안되지요. 맹세의 말 어김 안돼, 너와 함께 죽었던 말.(習習谷風, 以陰以雨. 黽勉同心, 不宜有怨. 采芣采芣, 無以下體. 德音莫違, 及爾同死.)” ○ 일부 판본에서는 “世途多翻覆”로 되어 있음.
- 53) 險巖：‘險巖’과 같은. 길이 구불구불 험한 모양. 기울어져 위태로운 모양.
- 54) 張陳：장이(張耳)·진여(陳餘)는 모두 진(秦)나라 때 사람으로, 위(魏)나라 신릉군(信陵君) 식객이었을 때 문경지교(刎頸之交)를 맺었다. 진나라 말기에 두 사람은 함께 조왕(趙王)을 올립했었다. 나중에 둘 사이에 틈이 생겨, 장이가 한나라에 투항하여, 한신과 함께 조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진여를 죽였다. 《사기(史記)·장이진여열전(張耳陳餘列傳)》 참조.
- 55) 蕭朱：한나라 때 소육(蕭育)과 주박(朱博)은 절친한 친구였는데, 나중에 결국 틈이 생겨서 떨어졌다고 한다. 《한서(漢書)·소망지전(蕭望之傳)》 부기 참조. ○ 星離：별이 서로 떨어지듯 헤어지다.

衆鳥集榮柯,⁵⁶⁾ 못새는 무성히 잘 자란 나무에 모여들고,
 窮魚守空池.⁵⁷⁾ 궁지 몰린 물고기는 물 마른 연못을 지킨다.
 嗟嗟失權客, 아아 환심을 잃은 빈객,
 勤問何所規.⁵⁸⁾ 간절히 묻나니 무엇을 따랐단 말인가.

<校記>

제4구의 ‘無’자가 ‘有’이나 ‘易’으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5구에서 제8구(萬事固如此, 人生無定期. 田竇相傾奪, 賓客互盈虧) 네 구가 없는 판본도 있다.

제16구의 ‘空’자가 ‘枯’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제18구의 ‘規’자가 ‘悲’나 ‘窺’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詳釋>

옛날에 양주는 갈림길을 만나면 슬프게 흐느꼈다고 하니, 이리로도 갈 수 있고 저리로도 갈 수 있는 것이 마치 인심과 세태가 쉽게 이리저리 변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묵자는 하얀 실을 잦는 것을 보면 매우 슬퍼했다고 하니, 그 실이 앞으로 누렇게도 물들고 까맣게도 물들게 될 것을 생각하여 그랬다고 한다. 세상만사 본래 이렇게 변하기가 쉬워 처음 모습 간직하고 처음 약속 지키기가 어려우니, 인생이란 참으로 기약없는 것이다. 한나라 무제 때 전분과 두영은 빈객을 좋아하여 앓다투어 빈객을 끌어들었다는데, 처음에는 두영에게 몰리던 빈객이 나중에는 전분이 총애를 받게 되자 모두 전분에게 몰려가버려서 두영의 문하는 텅 비게 되었다고 한다. 《詩經·邶風·谷風》의 시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경박한 세태를 풍자한 것으로, 나날이 기울어가고 험악해지는 우정을 비판한 것이다. 함께 술 마시며 즐길 때는 말술 들이키며 호기있게 약속하고 승낙하고 한다지만, 술이 깨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56) 榮柯 : 무성한 가지.

57) 空 : ‘枯’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음.

58) 勤問何所規 : “勤問何所悲” 또는 “勤問何所窺”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음.

의심하고 미워한다. 장이와 진여는 어려운 시절에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내줄 만큼 뜨거운 우정을 과시했다지만, 결국 나중에는 적이 되어 서로 공격하여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고, 한나라 때 소육과 주부도 남다른 우정으로 유명했지만 나중에는 마치 별과 별이 서로 저 멀리 떨어져있듯 사이가 멀어졌다네. 새들이 무성한 가지에 모이듯 사람들은 권세있는 사람에게 몰려가고, 아무에게도 의지할 곳 없는 외롭고 불쌍한 물고기는 혼자 텅 빈 연못을 지키는 신세가 된다. 아아, 예전에 그렇게 서로를 아껴주고 좋아하던 그 마음을 잃었으니, 애초에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바라서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解説>

세상 사람들이 잇속을 따져서 사람을 사귀고 따르거나 버리고 배반하는 것을 풍자한 시라는 것에 대해 모든 주석과 평가가 일치한다. 《계년》에서는 숙종 건원 2년(759) 지은 것이라고 했고, 광말약은 두보 시와 비교한 결과 보응 원년(762) 지은 것으로 보았다.

3. 결론

이상으로 상세한 註釋과 校記·詳釋·解説을 통해 이백의 ‘古風’ 59수 가운데 제52수에서 제59수까지 총 8수에 대해 번역을 진행했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백의 ‘古風’을 묘사한 題材에 따라 분류하면, 詠懷詩, 諷諭詩, 游仙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둘째, 이백의 ‘古風’의 영회시, 풍유시는 당시의 불합리한 정치 및 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 懷才不遇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 감화력이 매우 크며, 그 체제와 내용이 오연 영회 고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古風’에는 游仙詩의 성격을 가진 작품들이 있는데, 그 감정의 기초 또한 당시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풍자로부터 나온 것이다.

네째. ‘古風’은 특히 屈原의 《離騷》, 阮籍의 <詠懷詩>의 정서, 주제, 시구를 채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기탁하였다.

다섯째. ‘古風’은 대량의 역사사실, 신화전설 등의 전고, 비유, 상징, 풍자, 烘托 등의 예술 수사를 운용하여 당시 시대와 현실에 대한 감개를 드러내었다. 이로써 작품에는 무궁한 연상과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 하는 심층적 예술여백이 간직되어 있다. 이러한 시가미학은 이백의 經史子集에 대한 예술소양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여섯째. ‘古風’에서 나타난 ‘희망과 이상의 실현 의지’ → ‘좌절’ → ‘비판과 개탄’ → ‘초극의지’ → ‘초탈’이라는 삶의 과정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메시지이며 이백의 시를 번역해야하는 이유이다.

< 參考文獻 >

- 清 王琦 注, 《李太白全集》上中下, 臺北, 華正書局, 1991.
 詹鍔 主編,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1-8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6.
 安旗 主編, 《李白全集編年注釋》上中下, 成都, 巴蜀書社, 1990.
 郁賢皓 注譯, 《新譯 李白詩全集》上中下, 臺北, 三民書局, 2011.
 詹福瑞 劉崇德 葛景春 等, 《李白詩全譯》,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7.
 大野失之助 著, 《李太白詩歌全解》1-5, 東京, 稻田大學出版部, 1985.
 임도현, 《이백시선》, 서울: 지식은 만드는 지식, 2013.
 宋 肇, 《漫堂說詩》, 《清詩話》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郁賢皓, <李白‘古風’五十九首芻議>, 《中國文學研究》, 1989年 4期.
 陶新民, <論李白‘古風’五十九首的用典>, 《大連大學學報》第4卷第2期, 1994.6.
 楊海健, <‘古風’五十九首的來源與集成>, 《北京圖書館館刊》, 1999年 第1期.
 万德敬, <從‘古風’五十九首看李白的內心世界>, 《運城學院學報》第24卷 第13期, 2006. 6.
 錢志熙, <論李白‘古風’五十九首的整體性>, 《文學遺產》, 2010年 第1期.

吳台錫, <李白古風59首考>,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東亞文化》 제20집, 1982.
 申夏閔, <詠懷詩 전통 속의李白 '古風'五十九首 研究>, 중국어문학회, 《中國語文學志》 제5집, 1998.

< 中文提要 >

總之, 本論文主要探討在古風59首中從第52首至第59首的內容, 對此進行了註釋、校記、詳釋和解說。通過這些詩歌的研究, 可知李白詩歌有如下几个特点。

第一, 李白的《古風》, 按題材可分爲詠懷詩, 諷諭詩, 游仙詩等。

第二, 在李白的《古風》中, 咏怀詩和諷諭詩諷刺和批判當時黑暗的政治与社會現實, 也抒發自己懷才不遇之情, 因此這些詩具有強大的感召力量。其題材和內容都有五言咏怀古詩的特色。

第三, 在《古風》中還有游仙詩, 都寄托李白對當時現實的不滿和諷刺。

第四, 《古風》大多采用屈原《離騷》、阮籍<詠懷詩>的情調、主題、詩句, 從中寄托李白自己的情感。

第五, 《古風》大量運用歷史事實、神話傳說中的典故、比喻、象征、諷刺等藝術修辭, 表達對當時時代和現實的感慨。由此作品具有藝術空白, 使讀者展開聯想和想象的翅膀。這種李白詩歌美學特征正是出于由他熟習經史子集而積累的藝術素養的。

最后, 《古風》呈現出‘希望和理想的實現意志’ → ‘挫折’ → ‘批判和慨嘆’ → ‘超脫意志’ → ‘超脫的過程。這樣的李白人生途徑使我們反思自己人生, 也使我們翻譯其詩歌。

關鍵詞：李白、李白詩, <古風>五十九首、譯註, 詠懷。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6. 30.	2014. 7. 14.	2014. 7. 26.	2014. 8. 12.	2014. 8. 31.